

품귀 물고는 세계 밀값 폭등

국제소맥위원회의 소맥가격에 대한 예측은 내년에도 세계적인 소맥 부족상태가 지속될 것이라고 한다. 이위원회는 「7월중순이후 세계소맥전망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 「8월중순 세계소맥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평가한 결과는 이전의 평가와 마찬가지로 73~74 곡물연도에 밀이 공급사정은 경색을 면치 못할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근거로서 이 보고서는 금년도 밀 수입수요는 세계적으로 6천 6백만톤인데 비해 수출증가량은 5천 7백만톤에 불과 9백만톤의 공급부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작년 수입 수요 : 6,600만톤, 수출가능량 : 5,600만톤) 이 보고서는 이 같은 결과로 금년의 소맥시세 재고량은 많은 사람들이 위험한 수준으로 간주하는 3천 3백만톤이란 저수준으로 떨어질지 모른다고 예측했다.

7월중순 이후 국제시장에서 발생한 전례 없는 밀가격의 앙등으로 세계시장의 빵값을 부채질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쇠고기와 닭, 계란, 우유값의 등귀를 초래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도 있다.

세계곡물시장의 가격 앙등현상은 계속되고 있어 올 추수이후의 가격안정이 다소 있더라도 6개월전의 가격을 유지하기는 극히 어렵다.

「시카고」의 소맥가격도 8월중순 40%를 뛰어 소련이 2천만톤의 미국산소맥구매 계약을 체결했던 지난해 가격에 비해 거의 3배나 폭등했다. 「아르헨티나」, 호주, EEC는 모두 밀수출을 금지했으며 「캐나다」는 단골고객에게만 조심스럽게 팔고 있다고 한다.

소련이 밀구매와 중공을 비롯한 다른 외국

의 대미 소맥 수입분은 미국소맥의 수출력을 완전히 소진시켰으며 세계소맥 재고량은 20년래 최하수준으로 떨어졌다. 소맥의 부족은 세계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금년초 미국 「미시시피」주 계곡의 심각한 홍수등 전반적인 흉년이 사태를 악화시켜왔다. 이에반해 세계의 소맥 소비량은 연간 2.5%가 증가하며 73년과 74년의 세계곡물생산이 기록적인 3억 2천 1백만톤에 달한다 해도 수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한 것은 못된다.

소맥부족은 농부들로 하여금 가축사료 생산에 더욱 매력을 느끼게하는 육류가상승(肉類價上昇)으로 인해 악화되고 있다.

농부들은 인간소비를 위한 밀생산 보다는 가축사료생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동물사료를 확보하기 위해 콩수출을 금지시켰으며 이는 다시 콩값의 상승을 부채질했다. 사료값의 인상은 결과적으로 이 사료를 사용하여 사육하는 쇠고기, 닭고기 및 우유 등 생산물값의 상승을 유도하기 마련이며 전문가들은 이 모든 것을 악순환으로 보고 있다.

밀 수입 수요 및 수출 가능량 비교

	72년	73년
세계 밀 수입수요	6,600만톤	6,600만톤
세계 밀 수출 가능량	5,600	5,700
		(900만톤 부족예상)
미국 밀 수출 가능량		2,990
		(작년 보다 약간 떨어짐)
(○미국과「캐나다」의 ; 부셴당 5\$인상, 톤 밀 수출 가격 당190\$(75%인상)		
○세계의 소맥 소비량; 연간 2.5%증가		